

‘北 길들이기’ 피로 느낀 美, 대화론 부상

“대북제재 핵·미사일 개발 제어효과 없다”...방향 전환 주목

대북 전문가들 “중국 배제하고 직접 비핵화 협상 필요하다”

미국 워싱턴 내에서 대북 대화론이 조심스럽게 부상하고 있다. 북한이 아무런 ‘제동’ 없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논리에 터잡고 있다. 로버트 아이언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가 최근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이 물꼬를 텄다. 그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며 북한과 ‘탐색적 대화’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벅락 오

바마 행정부 1기 대북제재 정책을 상징해 온 인물의 ‘방향전환’이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케슬린 문 한국 석좌도 가세했다. 그는 “6자회담의 에너지가 고갈됐다”며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막후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사실 대북 대화론은 작년말부터 물밑 내연해왔다. 진보성향 학자들뿐만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에 몸담았던 관료출신들까지

목소리를 내었다. 오바마 경선캠프에서 한반도문제를 다뤘던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 스티븐 보즈워스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 제프리 베이더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대화론의 핵심은 제재와 압박에 무게를 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대북 제재가 북한을 고립화하고 경제적 타격을 주고 있지만 핵과 미사일 개발에는 ‘제어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북한을 더이상 의도적으로 무시하지 말고 ‘협상의 틀’로 끌어낼 수 있도록 외교적 행보를 시작하라는 주문이다. 특

히 6자회담의 틀 대신 북한을 상대로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략적 이해가 상이한 중국에 마냥 의존하지 말고 직접 북한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고 비핵화 협상에 나서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화론은 워싱턴 내에서 소수론이다. 과거의 ‘트랙 레코드’로 볼 때 북한이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확약하지 않는 한 협상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기류가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오바마 행정부 최고 정책서를 내에서 이 같은 분위기가 한층 강해보인다. /연합뉴스



미국 뉴욕주 소거티스에서 열린 허드슨벨리 음악축제에 참가한 여성들이 비키니 차림으로 진흙 슬로프를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美·호주 연구팀, 망막 검사로 치매 조기 진단 방법 개발

강황 이용 독성 단백질 검출

기존 검사는 고가·고통 수반

망막 또는 수정체 검사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조기 진단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호주와 미국 연구팀은 뇌세포에 나타나

는 치매의 특징적 표지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망막 또는 수정체에서 찾아내는 방법을 개발, 치매를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영국의 텔레그래프 인터넷판 등이 14일 보도했다. 치매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표지는 뇌의 신경세포 표면에 덩어리처럼 쌓이는 독성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노인반)이다.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이나 고통이 수반되는 침습적 방법인 요추천자(腰穿注射)를 통한 뇌척수액 검사 외에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존재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다. 호주 국립연구기관인 연연방과학산업

연구소(CSIRO)의 손 프로스트 박사는 망막 촬영으로, 미국 코그노프티스(Cognoptix)사의 폴 하통 박사는 수정체 촬영으로 베타 아밀로이드를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 프로스트 박사가 개발한 방법은 카레를 만드는 데 쓰이는 강황의 주성분인 큐르쿠민(curcumin)을 형광 꼬리표(fluorescent tag)로 이용해 망막에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영상으로 찾아내는 것이다. /연합뉴스

일본군에 피살 中유족들 1조 소송

판자위 마을 1300명 학살돼

강제징용 등 잇단 무더기 소송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된 중국인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1조 원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중국인론이 14일 보도했다.

2월에도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기업 등을 대상으로 무더기 손해배상소송을 자국 법원에 제기한 바 있어 중국인들의 대일 소송은 갈수록 증가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허베이(河北)성 평룬(豐潤)현 판자위(潘家峪)촌민위원회가 13일 중국민간대일손해배상소송연합회 측에 ‘판자위 학살’ 피해자 유족을 대신해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14일 보도했다.

허베이성 탕산(唐山)시에 위치한 작은 산간마을인 판자위촌은 제2차대전 기간 항일요새였던 곳으로, 1941년 1월 25일 일본군에 의해 마을주민 1천298명이 학살됐다. 생존자 중 한 명인 판서우리(潘守力·86) 할아버지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노인, 부녀, 아이 등 노약자들이 학살된 것으로 당시 곳곳에 그들의 시신이 널려 있었다”고 회고했다. 또 일본군이 마을 여성들을 창고 같은 곳에 몰아넣어 집단 성폭행하고 나서 흉기 등으로 끔찍하게 살해했다고 말했다. 통정(童貞) 중국민간대일손해배상소송연합회 회장은 “판자위 학살”은 일본 침략자들이 중국에서 저지른 전체 죄악으로 따지면 모래알갱이 하나같은 것”이라며 “피땀의 빛을 반드시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변호사를 고용해 자료를 정리하고 유가족들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이번 소송이 법원에 안건으로 올라간다면 제2차대전 중 학살된 중국인 유족들이 국내법정에 처음으로 대일 집단소송을 내는 사례가 된다고 밝혔다. 소장은 일본 정부의 사죄와 60억 원(약 984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예정이다. 일본은 1972년 양국의 공동성명으로 중국이 전쟁피해와 관련한 대일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태도이지만, 최근 중국 내에서는 개인 청구권을 별개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고 중국정부도 사실상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레바논-시리아, 이스라엘에 로켓 발사

이-팔 충돌 주변 확산 조짐

레바논과 시리아에서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로켓포가 날아오고 이스라엘이 즉각 대응 공격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충돌이 주변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처음으로 지상군을 투입했다가 철수한 데 이어 대규모 추가 공격을 예고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떠나라고 경고했다. 이에 2만명 가까운 가자지구 주민들이 긴급 대피에 나섰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레바논 서갈릴리아에서 1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포 수발이 발사됐고, 이스라엘군은 바로 발사지점을 향한 대응 포격을 가했다. 레바논 쪽에서 이스라엘로 향한 포격은 지난 11일 이후 3번째다.

레바논 쪽에서는 지난 11일과 12일에 두 이스라엘 북부 나하리아 등을 향해 로켓포가 발사됐으나 이스라엘 측 사상자는 없었다. 시리아 쪽에서도 13일 이스라엘이 점령해 관리하는 골란 고원 쪽으로 로켓포 수발이 발사됐다. 이에 이스라엘은 시리아 부대를 향해 대응 포격에 나섰다. /연합뉴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최근 유혈충돌이 시작된 이후 시리아 내부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공격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인접국으로부터의 로켓 포 공격을 팔레스타인 연계단체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레바논 주둔 마스는 13일 자신들은 이번 공격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13일 새벽 처음 지상군을 투입했던 이스라엘군은 추가 공격을 예고하며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했다. 이에 가자지구 주민 7000여명이 피난길에 올랐다고 AP 통신이 유엔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일부 주민은 어린 자녀와 함께 당나라가 끄는 수레에 짐과 매트리스를 싣고 가자지구 남쪽으로 향했으며 잠옷 차림의 주민도 행렬에 동참했다. 가자 주민 살렘 아부 할리마(25)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나와 자녀의 목숨을 구하려고 달아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지난 몇시간의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30여 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166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여기발

23년
기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시술후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신제품 기발중알가

59

만원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는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大山프리모기발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전

시공후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텀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381-0061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라남도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